



6.2 지방선거 결과와 향후 국정방향

2010년 6월 7일

제1부 EAI 전문가 여론 단평(短評): 6.2 지방선거결과의 의미와 과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메시지...강원택(EAI 시민정치패널위원장, 송실대)
독주형 리더십에서 화합형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한나라당 패배, 민주당의 승리?...임성학(EAI 선거패널연구팀, 서울시립대)
MB 정부 책임 50.8%, 한나라당 책임 28.4%, 민주당 및 야당이 잘해서 2.4%

지방선거 이후 정책방향...서현진(EAI 선거패널연구팀, 성신여대)
세종시, 4대강 반대여론 증가

제2부 제2차 5개지역/3차 전국패널 기초분석... 정한울 · 정원철

1. [5개 지역패널조사 분석] 수도권 유권자 투표선택의 반전, D-7~D-Day 사이의 변화
서울/경기 지역 투표선호 비교

2. [전국 패널조사 분석] 한나라당 패배의 원인과 이명박 정부의 향후 정국운영방향
한나라당 패배원인- 견제론, 선거전략, 정책위치
향후 정책추진 방향

[부록] 주요결과 교차표



I. EAI 전문가 단평(短評) : 6.2 지방선거결과의 의미와 과제

독주형 리더십에서 화합형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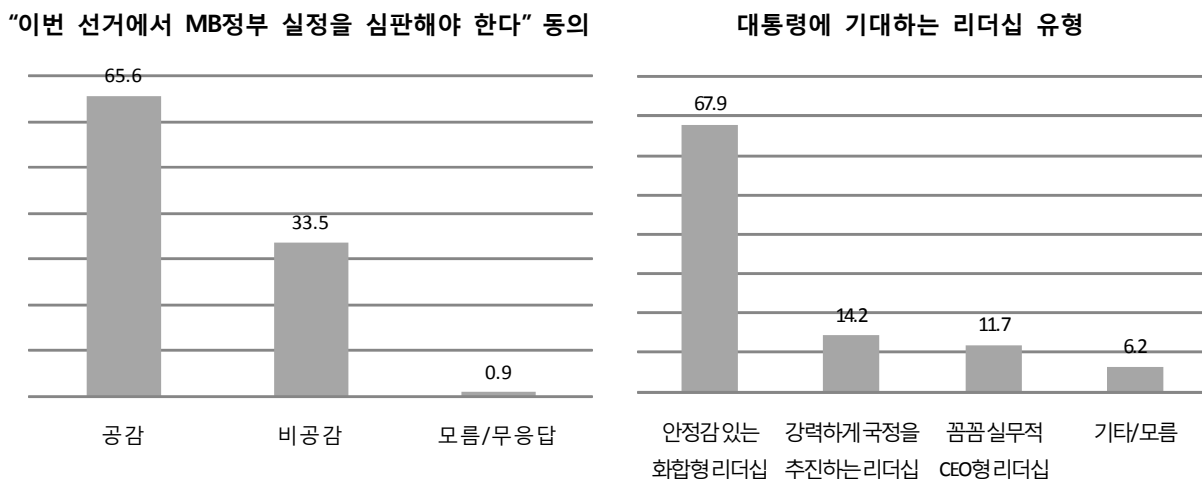
강원택(EAI 시민정치패널위원장, 숭실대 정외과)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노무현 정부 심판론이 맞섰지만 패널 조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공감하는 유권자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65.6%가 이 주장에 공감한다고 했고 33.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 1의 비율로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대해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 MB 정부 심판론에 공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인 74.5%가 세종시나 4대강 사업처럼 국민 여론과 달리 독단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67.9%의 응답자가 ‘일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했고, ‘정책의 내용과 방향’ 때문이라는 응답은 23.8%였다. 패널 조사 결과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패배가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식 독주형 리더십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바라는 리더십의 유형은 안정감 있는 화합형 리더십이 67.9%로 나타났고, 강력하게 국정을 추진해 가는 대통령 상을 기대한 비율은 14.2%, 꼼꼼하고 실무적인 CEO형 대통령은 11.7%에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한 추진력보다 소통의 정치력, 설득과 타협의 리더십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심판론 동의 비율과 대통령에게 바라는 리더십(%) (전국 조사 90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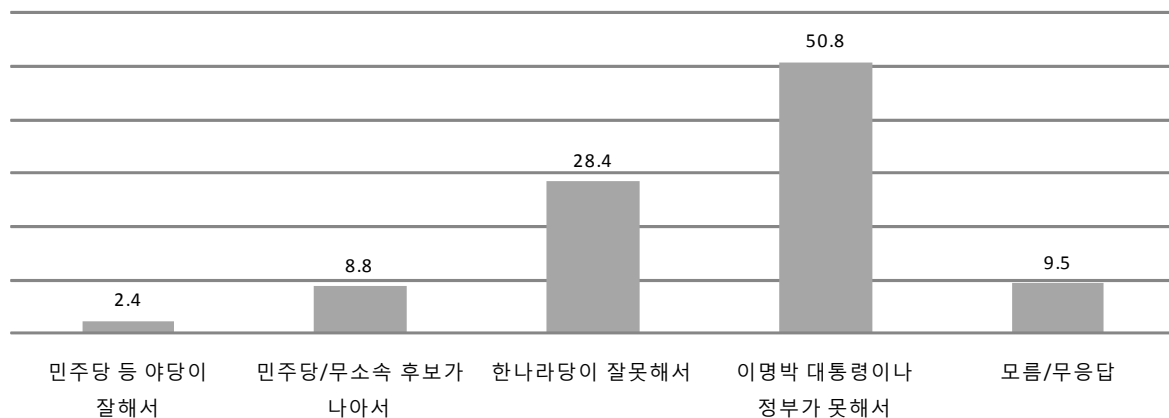
한나라당 패배, 민주당의 승리?

임성학(EAI 선거패널연구팀, 서울시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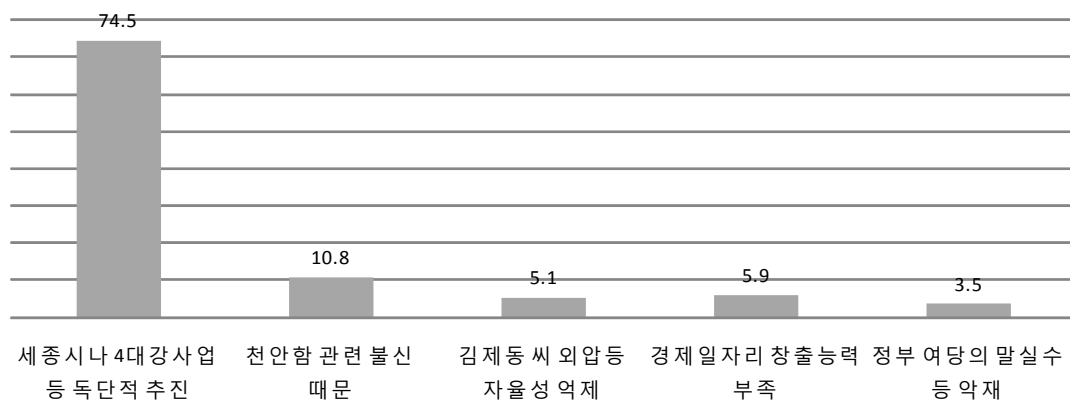
여당의 지방선거 패배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보면 MB의 국정운영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과반수 이상(50.8%)의 응답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가 못해서라고 답변하였고, 한나라당의 잘못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8.4%나 되어 응답자 2/3 이상이 여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여권의 총체적 반성과 민심회복 정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범야권의 지방선거 승리를 여권에 대한 야권의 비교우위로 평가할 수 있을까? 야당이 잘해서 혹은 후보들이 나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11.2%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야권의 승리는 여권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 민주당은 강력하고 참신한 리더를 발굴해야 하고 건설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으로부터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그림2] 지방선거 한나라당 패배, 민주당 승리의 이유 (전국 조사 904명)



[그림3] 정권심판론 공감이유 (전국 조사 정권심판론 공감자 593명)



지방선거 이후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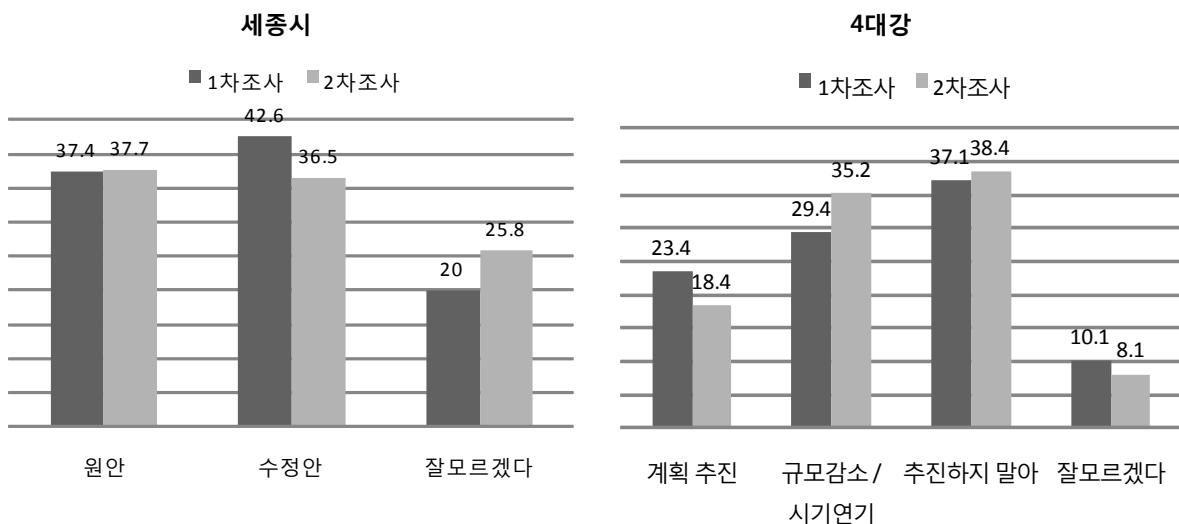
서현진(EAI 선거연구팀, 성신여대)

지방선거 후 관심은 자연스레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리더십에 변화가 필요한가로 옮겨가고 있다. 선거전후를 비교한 전국패널조사 결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심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1차 조사에서는 수정안인 교육과 학중심경제도시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이 42.6%로 가장 높았으나 2차 조사에서는 36.5%로 줄어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찬성비율(37.7%)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5%포인트 줄어든 반면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춰야한다’는 응답은 5.6%포인트 증가하였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자 중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차 29.8%에서 2차 41.1%로 12.3%포인트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도 1차 27.6%에서 2차 40.6%로 13%포인트나 증가하는 등 보수층의 입장 변화가 눈에 띄게 컸다.

전반적으로 정부안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감소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배와 더불어 향후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계속 추진되기는 어려운 현실임을 시사한다.

[그림4] 세종시 사업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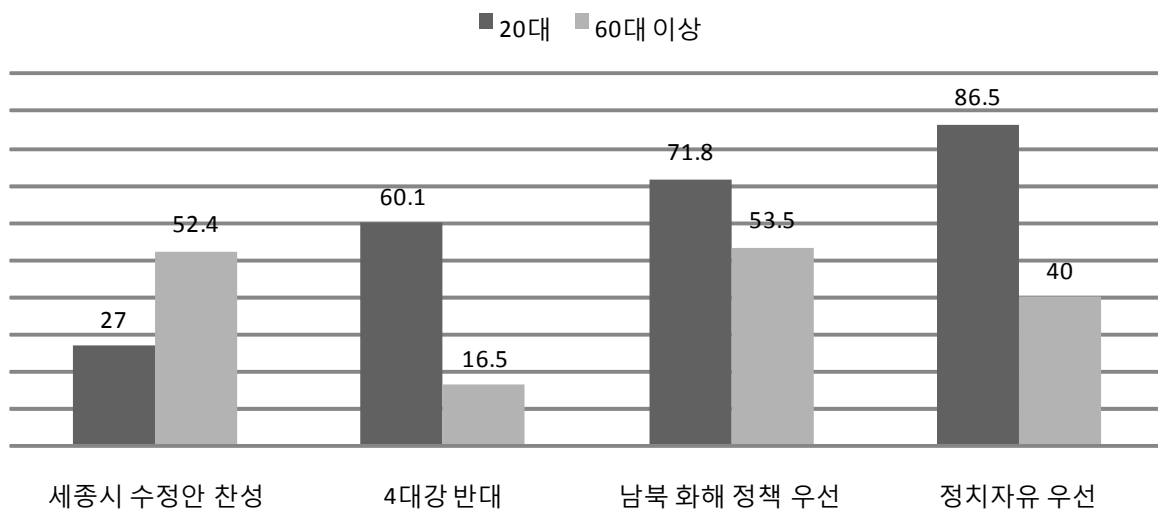


또한 이번 선거 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집단으로 추정되는 20대 젊은 유권자들은 여러 가지 정책 이슈에서 60대 이상 유권자들과 매우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19세-29세 응답자(27%)와 60대 이상 응답자(52.4%)의 찬성 비율은 25.4%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4대강 사업반대 비율은 더 큰 차이(43.6%)가 나는데 60대 응답자는 16.5%만 반대하는 반면 19세-20대 응답자의 6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대 이상에서는 53.5%, 19세-20대 이상에서는 71.8%로 18.3%포인트 차이가 났다. 정치적 질서와 자유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20대 응답자의 86.5%가 ‘정부는 정치적 질서보다는 국민의 자유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답한 반면 60대 이상은 40%만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응답에 대한 세대 간 차이는 무려 46.5%포인트나 되었다.

따라서 향후 정국운영의 성공여부는 정부와 여당이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민심의 변화와 세대 간 입장 차이를 얼마나 잘 읽어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달려있다. 또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9%가 대통령의 화합적 리더십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대통령이 얼마나 화합적 리더십을 발휘하는지도 정국안정과 사회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그림5] 주요 현안에 대한 세대별 인식격차



Ⅱ. 6.2 지방선거 제2차 전국 / 제3차 5개 지역 패널조사 주요 결과

정한울 ·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1. 제3차 5개지역 패널조사 특징

1. 한 달 간 지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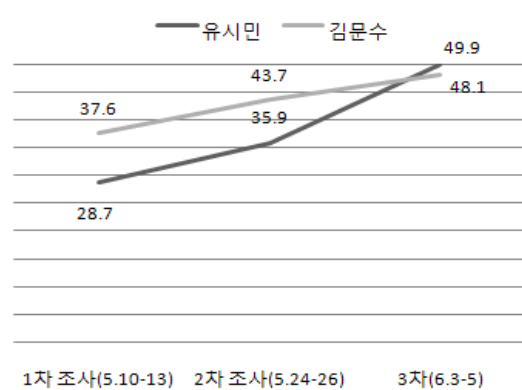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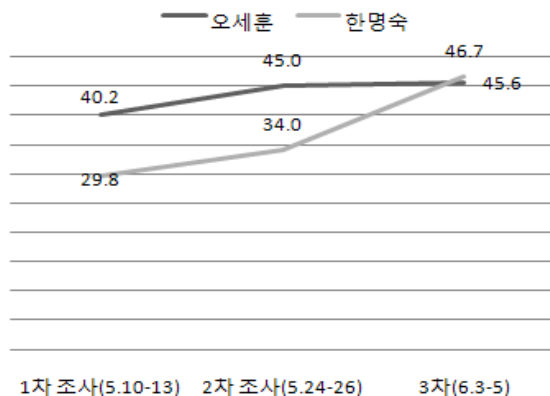
수도권 선거 일주일 이내 지지율 격차 급감, 경기는 D-7 시점에 격차 7.8%p 근접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준 곳은 역시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0~13일 실시한 1차 조사, 5월 24~26일 실시한 2차 조사, 6월 3~5일 실시한 선거 후 3차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1, 2차 조사까지는 한나라당 오세훈, 김문수 후보가 수도권에서 각각 한명숙, 유시민 후보를 12.0%p, 7.8%p 전후의 격차로 앞서다 선거시점 조사에서 급격히 좁혀진 것으로 나타난다. 지지율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진 것은 선거일 일주일 이내 시점으로 판단된다.

[그림1]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율 변화

서울 : 한명숙 12.7%p 상승, 오세훈 정체

경기 : 유시민 14.0%p 상승, 김문수 4.4%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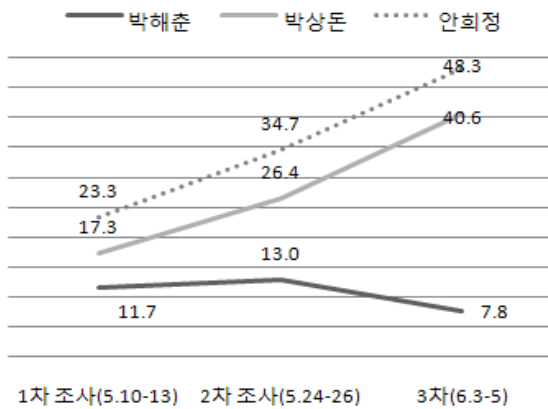
충남/경남 야권후보의 우세 유지, 전북 한나라당 후보의 의미 있는 선전

한편 안희정, 김두관 후보는 1차부터 마지막 조사시점까지 상대 후보에 대한 미세한 우세를 끝까지 지켜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경남지역 조사에서는 실제 투표 결과보다 김두관 후보 지지율이 과대 대표되어 격차를 크게 벌린 점이 특징이다. 이는 선거 후 조사(post-election) 조사에서 당선자 지지율이 과대대표되는 오버리포팅(over-reporting) 효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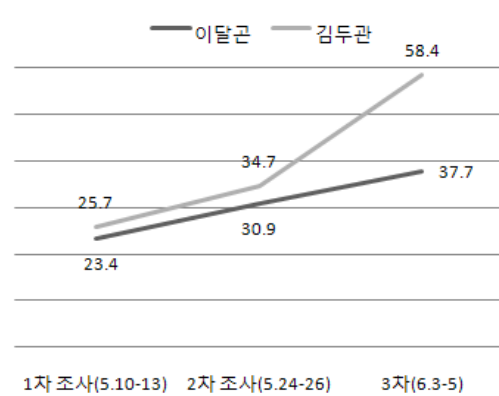
전북지역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김완주 후보가 1, 2차 조사에서 이미 큰 지지율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한나라당 정운천 후보의 지지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보다 주목할 특징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호남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들이 10%를 넘어 나름의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2] 충남, 경남, 전북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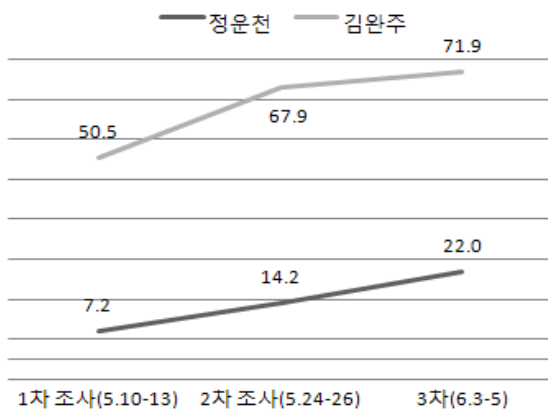
충남 : 안희정, 박상돈 동반상승, 안 격차 유지



경남 : 김두관 격차 벌려, 오버리포팅 효과



전북 : 김완주 압승, 정운천 상승



2. 수도권 표의 이동 : 투표일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야권 후보들의 약진은 자기 지지층의 결집과 함께 이전 조사에서 부동층(미결정층)을 선거과정에서 흡수한 결과로 나타났다. 충남, 경남의 경우 이미 2차 조사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였던 반면 수도권에서는 추세를 발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의외의 선거결과에 놀라야 했다. 시간 변화에 따른 유권자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패널조사의 특징을 살려 2차 조사 응답결과와 3차 조사 결과 응답을 비교해본 결과다.

서울

2차 오세훈 지지자 86.3%, 한명숙 지지자의 93.1% 지지 유지. 부동층의 50.9%가 한에 투표

2->3차	사례수	357명	오세훈	한명숙	지상욱	노회찬	모름/무응답	계
오세훈	(167)	⇒	86.3	8.0	0.0	1.7	4.0	100.0
한명숙	(130)	⇒	2.2	93.1	0.0	0.8	4.0	100.0
지상욱	(5)	⇒	0.0	57.0	43.0	0.0	0.0	100.0
노회찬	(12)	⇒	8.8	53.3	0.0	37.9	2.5	100.0
미결정	(40)	⇒	36.2	50.9	2.8	7.6	0.0	100.0
기권	(1)	⇒	0.0	100.0	0.0	0.0	0.0	100.0
모름	(3)	⇒	20.0	80.0	0.0	0.0	0.0	100.0

경기

2차 김후보 지지자의 96.0%, 유시민 후보의 96.6%가 지지유지, 부동층 70.5%가 유에 투표

2->3차	사례수	363명	김문수	유시민	모름/무응답	계
김문수	(166)	⇒	96.0	2.8	1.2	100.0
심상정	(9)	⇒	4.8	95.2	0.0	100.0
유시민	(132)	⇒	1.6	96.6	1.8	100.0
미결정	(50)	⇒	24.0	70.5	5.5	100.0
기권	(1)	⇒	38.1	29.8	32.1	100.0
모름	(5)	⇒	13.0	87.0	0.0	

충남

2차 박해춘 지지자의 40.1%, 미결정층의 50.5%가 박상돈 후보 투표, 안후보 투표

안 후보 지지의 94.0% 안 지지, 박상돈지지 68.7%가 지지유지, 24.6%가 안후보에 투표로 이탈

1차->2차	사례수	349명	박해춘	안희정	박상돈	모름/무응답	계
박해춘	(52)	⇒	33.6	17.6	40.1	8.7	100.0
안희정	(104)	⇒	0.3	94.0	4.3	1.5	100.0
박상돈	(113)	⇒	2.2	24.6	68.7	4.6	100.0
미정	(76)	⇒	8.7	40.8	50.5	0.0	100.0
기권	(3)	⇒	19.3	80.7	0.0	0.0	100.0
모름	(1)	⇒	0.0	62.5	37.5	0.0	100.0



경남

김두관 후보 지지유지 93.2%, 이달곤 후보 지지유지 89.7%, 미결정층에서 김후보 투표율 69.3%

1차->2차	사례수	377명	이달곤	김두관	모름/무응답	계
이달곤	(118)	⇒	89.7	6.8	3.5	100.0
김두관	(133)	⇒	6.1	93.2	0.7	100.0
미결정	(120)	⇒	22.9	69.3	7.8	100.0
기권	(5)	⇒	0.0	100.0	0.0	100.0
모름	(1)	⇒	100.0	0.0	0.0	100.0

전북

정운천 후보 79.3% 정후보에 투표, 김완주 지지자의 87.2%가 지지유지, 미결정층 25.9%가 정 지지

1차->2차	사례수	372명	정운천	김완주	하연호	염경석	김대식	모름/무응답	계
정운천	(55)	⇒	79.3	16.7	1.8	0.0	2.2	0.0	100.0
김완주	(252)	⇒	7.9	87.2	1.9	1.2	1.4	0.5	100.0
하연호	(6)	⇒	36.8	35.9	27.2	0.0	0.0	0.0	100.0
염경석	(6)	⇒	51.4	0.0	13.1	35.5	0.0	0.0	100.0
미결정	(50)	⇒	25.9	67.7	3.6	0.5	1.6	0.7	100.0
기권	(2)	⇒	0.0	100.0	0.0	0.0	0.0	0.0	100.0

3. D-7~D-Day 수도권에서의 반전

한나라당의 신중전략에서 공세전략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역풍 발생

1) 반MB 분위기의 급격한 증가

선거 일주일 앞두고 실시한 2차 패널조사 시점에는 천안함 안보결집효과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안정론과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바 있다(EAI 여론브리핑). 그러나 20일 민관합조위 발표를 계기로 여당은 안보공세와 함께 ‘전쟁권 심판론’, ‘전교조 심판론’을 내세우며 대세론 굳히기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주일간 안정론은 급격히 위축되고, 대통령 지지율로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견제론의 급증, 특히 서울에서 일주일 사이 견제론 13.7%p 급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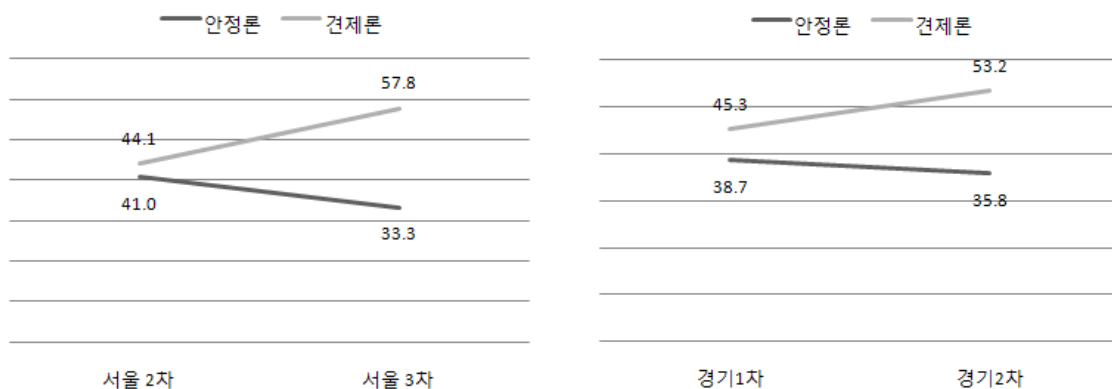
2차조사와 3차 조사에 동시에 응한 서울 401명 응답패널 중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견제론을 지지한 응답은 44.1%에서 57.8%로 무려 13.7%p 상승했다. 반면 ‘대통령과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1.0%에서 33.3%로 떨어졌다.



경기에서도 400명 패널 응답자 중에서 안정론이 45.3%에서 55.2%로 7.9%p 상승한 반면, 안정론은 38.7%에서 35.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실제 투표 결과에서 경기보다 서울에서 여야 득표격차가 좁혀진 것은 이러한 견제론의 증가 속도와 폭의 차이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3] 2차-3차간 안정론, 견제론 비율 변화

서울401명 : 견제론 13.7%p↑ 안정론 7.7%p↓하락 경기400명 : 견제론 7.9%p↑, 안정론 2.9%p↓



천안함 이후 안보 결집효과의 약화 : 대통령 지지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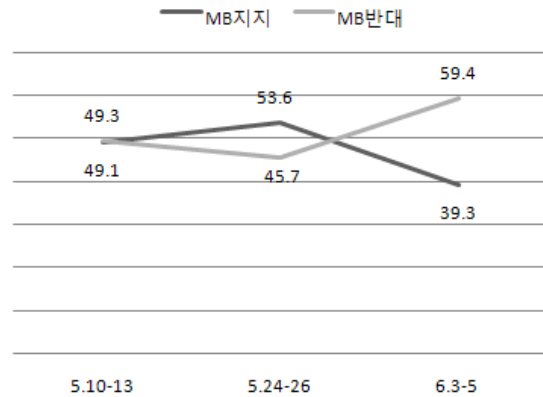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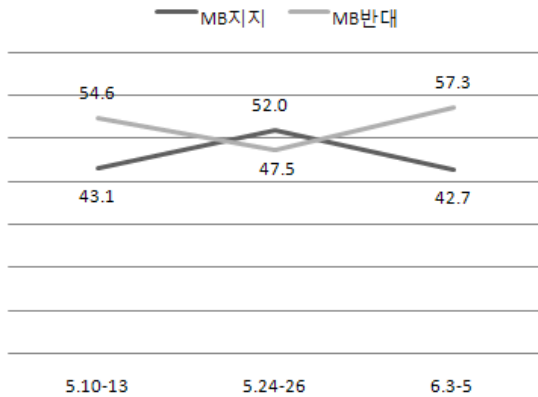
천안함 진상발표(20일) 이후 실시한 2차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나타난 수도권에서 투표 시점이 되어 다시 지지율 하락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서울에서 52.0%까지 올라갔던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직후 조사에서는 42.7%까지 떨어졌다. 경기에서는 53.6%까지 올라갔던 대통령 지지율이 투표전 일주일 간 39.3%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 발표 이후 잠잠했던 여론이 진상발표에 대한 불신과 정부 대처에 대해 비판한 도올 김용옥의 강연이 소개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또한 지난 2차 5개지역 패널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안보 결집효과가 급격히 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4] 1차-3차간 대통령 지지율 변동

서울401명 : MB지지 52.0%→42.7% 9.3%p↓ 하락

경기400명 : MB지지 53.6%→ 39.3% 12.3%p↓



2) 서울 이변, 숨은 표 효과인가? 막판 쓸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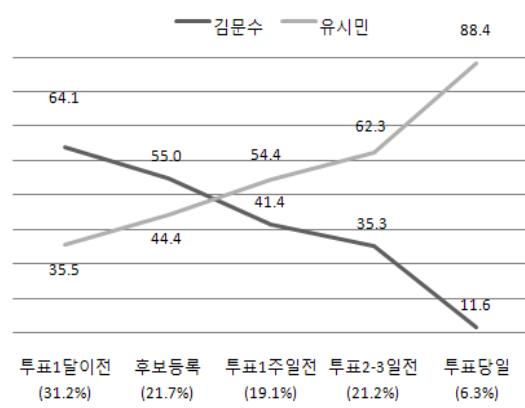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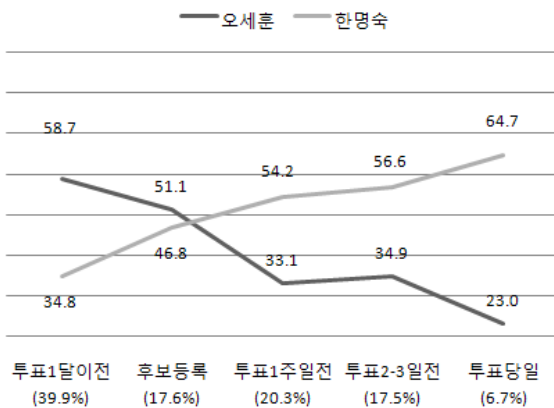
투표 결정 시점별 지지후보 : 수도권에선 선거 2~3일 이내 민주/단일후보 지지 급증

야권 지지성향의 유권자들이 자기 의사를 감췄다가 보다는 정부 견제론을 가지고 있던 비판적 유권자들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투표선택을 하지 못하다, 즉 미결정층으로 남아 있다가 정부 여당의 공세전략에 반발하며 민주당/단일후보를 급격하게 선택하면서 수도권에서 급격한 표의 쓸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5] 지지후보 결정 시점별 여야 후보 지지율 차이 : 서울과 경기

서울357명 투표일 64.7%, 2-3일전 56.6% 韓 지지

경기363명 유시민 14.0%p상승, 김문수 4.4%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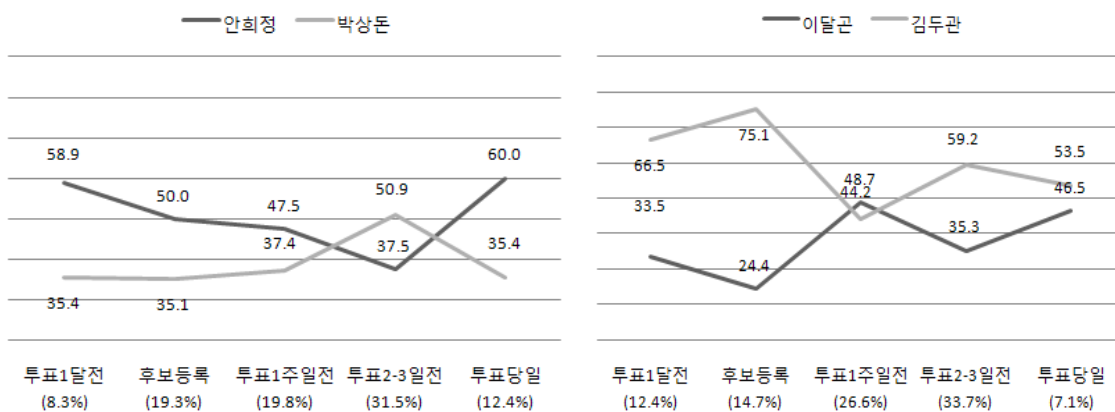


지지후보 결정 시점별로 지지후보 규모를 비교해보면 선거 한달 이전에 선택을 한 유권자들은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선거 일주일 앞둔 시점부터 후보를 선택하기 시작한 미결정층 들의 경우 반대로 야권 후보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다. 특히 투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이들의 선택은 야권후보들로 급격하게 쏠렸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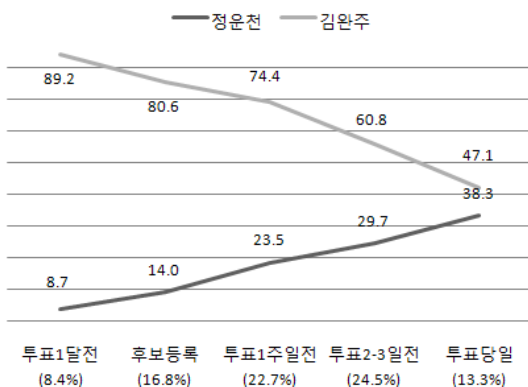
재미있는 점은 수도권에서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막바지로 갈수록 급격하게 한명숙, 유시민 후보 지지로 이어진 반면 그동안 오차범위 내에서지만 우세를 유지하고 있던 김두관, 안희정 후보의 경우 투표 일주일~2-3일 앞두고 상대후보의 추격을 허용한다. 선거 막판 상대후보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최종 결집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6] 지지후보 결정 시점별 여야 후보 지지율 차이 : 충남, 경남, 전북

충남349명 안희정, 박상돈 추격 투표 당일 따돌려 경남377명 김두관 천안함 발표직후 역전될 뻔



전북372명 김완주 압승, 정운천 막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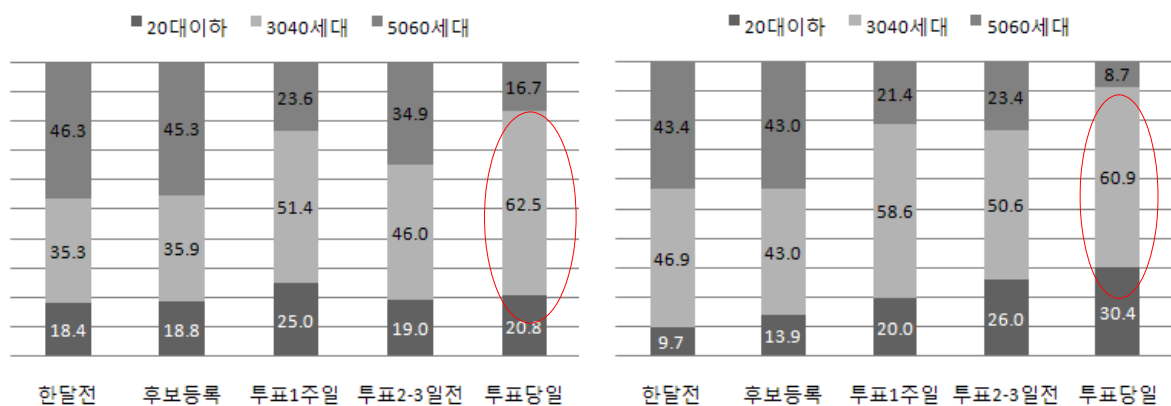
세대별 투표 결정시점 : 투표자 서울 62.5%, 경기 60.9%가 30~40대

일주일 전 기존 선거 여론조사들이 대다수 오,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예측한 바 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간 데에는 젊은 층의 높은 투표율이 한 몫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들이 언제 지지후보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경기의 경우 투표 시점에 다가갈 수록 20대의 선택이 가시화되어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경기는 물론, 서울에서도 투표 당일 표출림의 주역은 오히려 30-40대 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여론이 숨어 있었다기 보다는 이들의 선택이 선거 직전에 쏠린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7] 세대별 지지후보 결정시기

서울 401명

경기 400명



대안 찾지 못한 수도권 견제론자의 막판 결집

[서울] 2차 조사, 견제론자 68.0% 한 지지 → 3차 조사, 견제론자 73.9%가 한명숙 지지

[경기] 견제론자 73.9% 유시민 지지 → 83.3%로 지지 결집

수도권 안정론자 91.3%가 오세훈, 김문수 후보 지지로 이어진 반면 서울에서 견제론자의 68.0%가, 경기에서 70.7%만 유시민 후보 지지로 이어져. 반면 충청권에서는 박상돈 후보의 표분산 효과로 안정론의 46.7%, 견제론의 49.7%만 각각 박해천, 안희정 후보 지지로 이어져. 경남에서는 안정론자의 68.3%가 이달곤 후보를, 견제론자의 63.9%가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여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마지막 조사결과를 보면 한명숙 후보가 견제여론의 73.9%를 흡수하고 이전 조사에서 오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들의 5.3%를 새롭게 흡수했고, 경기도의 유시민 후보도 무



려 83.3%의 흡입력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흡입력이 결국 지지율 반등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1] 안정론/견제론 입장 별 지지후보 집중도 : 2차-3차 비교(%)

2차	D-7	오세훈	한명숙	지상욱	노회찬	미정	기권	모름/무응답	계
서울	안정론	91.3	0.5		2.2	5.5		0.5	100
	견제론	8.2	68.0	3.1	5.2	12.4	2.1	1.0	100
	D-7후보	김문수	유시민		심상정	미정	기권	모름/무응답	계
경기	안정론	92.5	1.7		0.6	4.0	0.6	0.6	100
	견제론	6.3	70.7		3.9	16.1	1.0	2.0	100

↓

3차	투표시	오세훈	한명숙	지상욱	노회찬	모름/무응답	계
서울	안정론	92.4	5.3			2.3	100
	견제론	15.5	73.9	1.0	5.3	4.3	100
		김문수	유시민			모름/무응답	계
경기	안정론	95.5	3.8			0.8	100
	견제론	13.6	83.3			3.0	100

제2차 전국패널 기초 분석안

1. 한나라당은 왜 패배했나? 민주당의 승리인가?

한나라당 패배 이유, “대통령과 정부가 못해서” 50.8%, “한나라당이 못해서” 28.4%나
 “민주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나아서” 8.8%, “민주당 잘해서” 2.4%

이번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한 요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가 못해서”를 꼽는 응답비율이 50.8%로 가장 높았고, 한나라당이 못해서라는 응답은 28.4%였다. 민주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의 인물경쟁력을 꼽은 응답은 8.8%였고, 민주당 등 야당이 잘해서라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이번 한나라당 패배의 주된 원인은 결국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론이 다시 작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야권의 승리는 자력의 승리라기 보다는 반사이익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은 고연령층, 저학력, 영남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권심판론을 꼽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민주당 및 야당 지지층에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가 못해서라고 답한 응답이 많았다. 특히 대통령 국정 지지층에서는 한나라당의 문제를 꼽은 응답이



많아, 친이계 및 비친이계, 정부와 여당 책임소재 공방에 있어서 여권 지지층내 인식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층이나 국정지지층에서조차 전체적으로 대통령 혹은 한나라당을 꼽은 응답이 많아 자성의 여론이 적지 않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2] 야당 승리요인에 대한 사회집단별 인식(%): 전국패널2차 904명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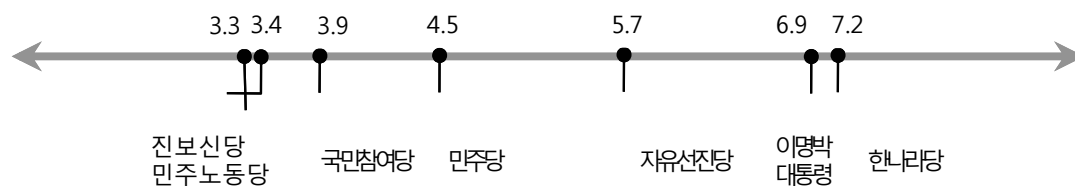
	사례수 (명)	민주당 등 야당이 잘해서	민주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다른 정당 후보보다 나아서	한나라당이 잘못해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가 못해서	모름/ 무응답
전체	(904)	2.4	8.8	28.4	50.8	9.5
연령						
19-29 세	(163)	4.3	6.1	23.3	66.3	0.0
30 대	(199)	2.0	6.5	31.2	54.3	6.0
40 대	(219)	2.3	11.0	22.8	58.0	5.9
50 대	(153)	2.6	7.8	28.1	42.5	19.0
60대이상	(170)	1.2	12.4	37.6	30.0	18.8
학력						
중 졸 이 하	(61)	3.3	19.7	19.7	32.8	24.6
고 졸	(425)	2.4	10.4	31.5	47.5	8.2
대 재 이 상	(415)	2.4	5.8	26.5	57.1	8.2
모름/무응답	(3)	0.0	0.0	33.3	0.0	66.7
직업						
화 이 트 칼 라	(284)	1.4	6.7	25.0	59.2	7.7
블 루 칼 라	(104)	3.8	7.7	36.5	47.1	4.8
자 영 업	(148)	2.7	10.8	33.8	42.6	10.1
주 부	(226)	2.2	11.1	24.3	46.5	15.9
학 생	(71)	4.2	8.5	22.5	64.8	0.0
무직기타무응답	(71)	2.8	8.5	38.0	39.4	11.3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59)	3.4	15.3	23.7	40.7	16.9
100-199만원	(105)	1.0	8.6	35.2	43.8	11.4
200-299만원	(199)	3.5	8.0	29.1	48.2	11.1
300-399만원	(197)	1.5	3.6	28.9	58.4	7.6
400만원이상	(309)	2.3	11.0	25.9	53.7	7.1
모름/무응답	(35)	5.7	14.3	31.4	34.3	14.3
권역						
서 울	(197)	2.0	8.6	25.9	51.8	11.7
인 천 / 경 기	(251)	2.0	9.2	28.7	50.6	9.6
대 전 / 충 청	(89)	4.5	10.1	28.1	47.2	10.1
광 주 / 전 라	(99)	2.0	9.1	22.2	60.6	6.1
대 구 / 경 북	(92)	1.1	8.7	29.3	48.9	12.0
부산/울산/경남	(142)	2.1	7.7	36.6	45.8	7.7
강 원 / 제 주	(34)	8.8	8.8	23.5	52.9	5.9
국정운영평가						
금 정 평 가	(368)	4.1	15.2	36.7	24.5	19.6
부 정 평 가	(526)	1.3	4.0	22.8	69.6	2.3
모름/무응답	(10)	0.0	30.0	20.0	30.0	20.0

지나친 보수화에 대한 경계

정당에 대한 이념평가나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에 대한 평가를 보면 현재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이념적 성향을 많이 보수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2006년 중도로 인식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 5.9점, 현재 6.9점까지 보수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6.0, 6.4점, 현재는 7.2점으로 상당히 보수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민들 평균 이념 점수가 5.2점임을 고려하면 중간층의 국민들로부터 이념적으로 외면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셈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이 ‘중도실용주의’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시각에는 이미 많이 보수적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천안함 대국민 담화를 ‘전쟁기념관’에서 진행하고, ‘전쟁을 할 생각은 없지만,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강성발언, 대북 제재, 대북방송전의 재개 등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8] 정당과 MB 이념 평가(0~10점): 전국패널2차 904명



[표2] 정당과 MB 이념 평가(0~10점) 변화: 2006~2010년

	06년 6월	08년 총선 3월	10년 6월
데이터	2006 지방패널조사	2008 총선패널조사	2010 지방패널조사
열린우리당	4.4	4.6	4.5
한나라당	6.0	6.4	7.2
이명박 대통령*	5.0	5.9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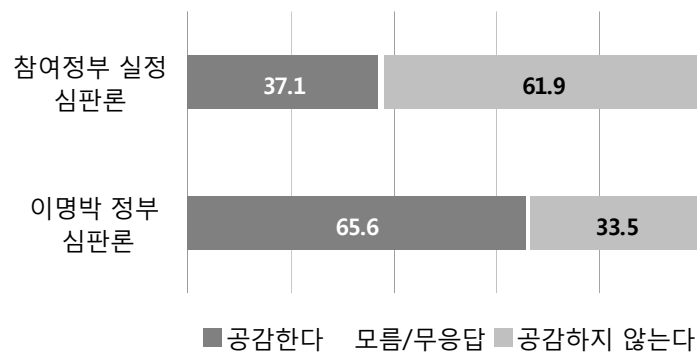
* 이명박 대통령은 06년 2차 조사 당시 유력한 대선 주자였음.

** : 0점은 매우 진보, 5점은 중도, 10점은 매우 보수를 의미함.

한나라당의 실패한 전략 : 전 정부 심판론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대해서는 65.6%의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반면, 참여정부 실정 심판론에 대해서는 37.1%의 응답비율을 보임으로써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친노 인사들이 야권의 단일주자로 선정되면서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 ‘MB 대 반MB’ 대결구도 대신 ‘MB 대 친노’ 대결구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정부 심판론에 공감하는 비율은 37.1%에 그친 반면,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공감하는 비율이 65.6%로 나타났다.

[그림9] 전 정부 심판론과 이명박 정부 심판론 공감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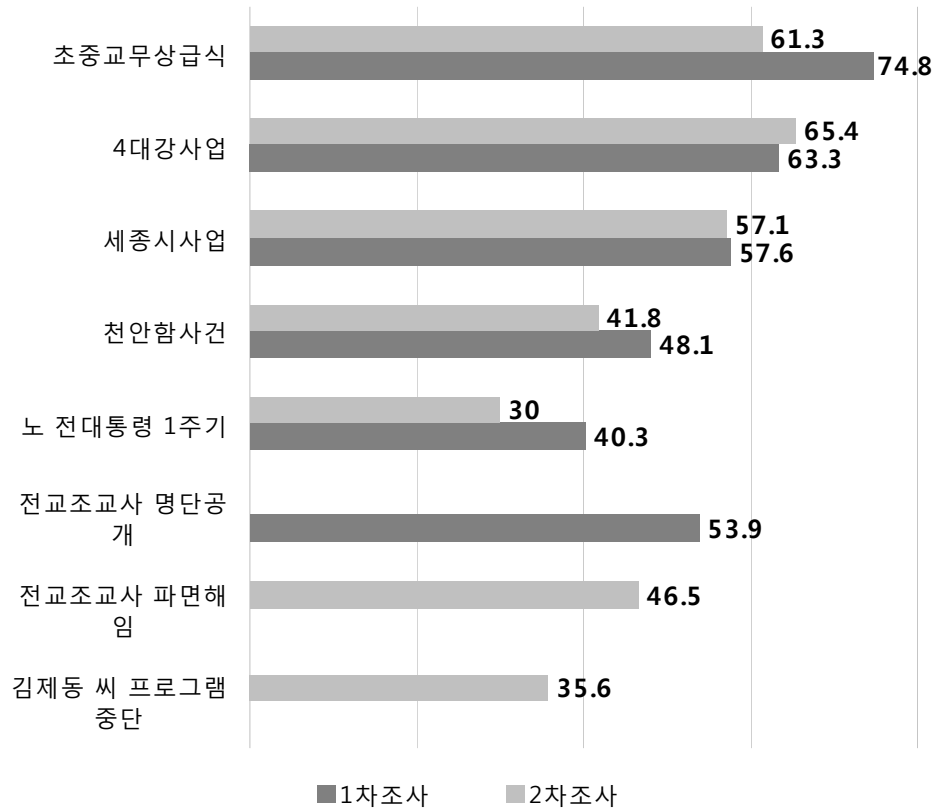


국민들이 바라는 이슈와 선거캠프 전략간 괴리

핵심 이슈는 초중교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서 나타났다. 언론과 각 선거캠프들이 주로 소위 ‘북풍 대 노풍’ 이라는 두 가지 이슈 사이의 프라이밍 효과에 주목했지만, 실제 유권자들의 관심에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이슈였다. 천안함 사건 진상발표 이후 언론의 집중 보도로 다른 이슈들이 언론과 공론의 장에서 거의 부각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선거에서 미디어의 아젠다 셋팅, 프라이밍 효과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판 야권투표 결집의 주역으로 꼽히는 세대요인을 고려해봐도 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고려할 이슈요인으로는 무상급식 문제와 4대강 사업이 최대 이슈로 집중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2차 조사에서 그 순위가 바뀌고 세종시 사업이 2위로 꼽힌 경우들은 있었으나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꼽은 핵심 이슈였다.

[그림10] 1차 2차 조사의 이슈별 투표 고려비율(%)



[표3] 세대별 투표 고려 이슈 순위 : 1위,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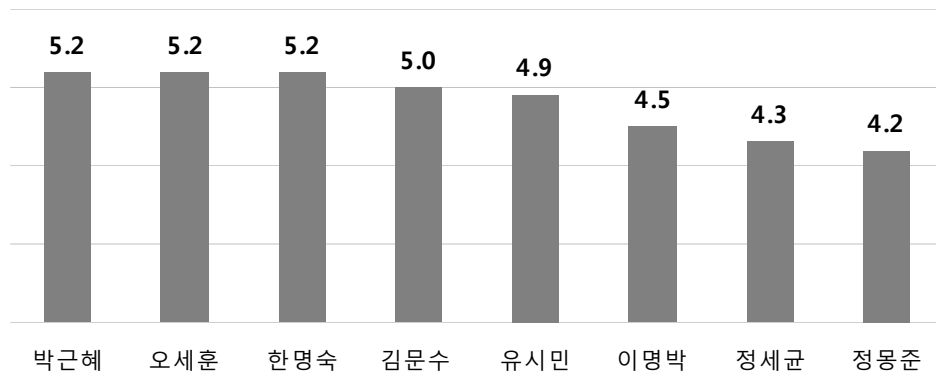
	1차 조사				2차 조사			
	1위		2위		1위		2위	
	이슈	%	이슈	%	이슈	%	이슈	%
19 - 29 세	무 상 급 식	77.6	4대강 사업	70.5	4대강 사업	79.8	무 상 급 식	69.3
30 대	무 상 급 식	73.2	4대강 사업	61.6	무 상 급 식	69.8	4대강 사업	63.3
40 대	무 상 급 식	73.9	4대강 사업	56.2	4대강 사업	69.4	무 상 급 식	64.4
50 대	무 상 급 식	74.2	4대강 사업	59.5	4대강 사업	58.8	세종시 사업	53.6
60대 이상	무 상 급 식	75.2	4대강 사업	69.8	4대강 사업	54.7	세종시 사업	51.2



2. 선거 이후의 정국

1) 정치인 선호도, 여권 정치지도자의 추락

[그림 11] 주요 정치인 호감도 점수: 0(매우 싫다)~10점(매우 좋다)



*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값으로 표시

2008년 총선 기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대표, 정몽준 전 대표 등 한나라당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떨어졌다. 박전대표는 총선직후 10점 만점에서 6.4점을 얻어 6.2점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높은 호감도를 유지했고, 정몽준 대표 역시 당시 5.4점을 받아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간신히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당선자, 김문수 당선자가 이번에 선전한 한명숙, 유시민 후보와 비슷한 호감도를 유지하고 있다.

2) 최고의 정국 수습책: 경제와 국민통합에 집중

경제와 생활과 동떨어진 선거, 이전 선거에 비해 정치적 쟁점이 영향 미쳐 66.2%

집권 후반기 차기정부가 우선해야 할 과제로 경제적 양극화 완화 28.8%, 국민통합 16.6%, 경제성장 15.5%, 남북관계 개선을 꼽은 응답이 10.4%로 높은 응답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경제문제와 관련된 아젠다를 꼽은 응답이 많았지만 국민통합, 남북관계 개선 등을 꼽은 응답이 많은 것은 결국 정부의 독주, 남북대결 국면의 완화에 대한 여론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삶의 질 개선이 6.5%, 정치개혁이 5.8%, 지역균형발전이 5.0%로 뒤를 이었다.

[표4] 선거 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

국민통합	경제적 양극화 완화	남북관계 개선	정치개혁	경제성장	국제 경쟁력 강화	삶의 질 개선	국가안보 강화	교육개혁	지역균형 발전
16.6	28.8	10.4	5.8	15.5	4.4	6.5	2.9	2.9	5.0

3) 세종시와 4대강 어떻게 하나?

정권심판론의 토양 세종시, 4대강 밀어붙이기 74.5%

국민 67.9%가 바라는 화합형 대통령 67.9%

MB 심판론에 공감하는 593명을 대상으로 그 계기를 물어본 결과 세종시, 4대강 사업 등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4.5%, 천안함 문제를 꼽은 응답이 10.8%, 경제살리기 능력 부족을 꼽은 응답이 5.9%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정부여당의 패배와 함께 그 동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감소하는 등 세종시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 마련되었다. 4대강 사업의 경우도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여론이 늘고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은 감소하고 있다.

독주 형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실제로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바라는 리더십으로 화합형을 꼽은 응답이 67.9%, 강력한 리더십이 14.2%, 실무형 리더십을 바란다는 응답이 11.7%였다. 세종시, 4대강 추진과정이 이후 화합형 리더십으로의 전환이 성공할 지는 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5] 세종시 사업 방향(%)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인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잘 모르겠다
1차조사	37.4	42.6	20.0
2차조사	37.7	36.5	25.8

[표6] 4대강 사업 방향(%)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춰야 한다	4대강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1차조사	23.4	29.4	37.1	10.1
2차조사	18.4	35.2	38.4	8.1



EAI 동아시아연구원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10 지방선거패널조사

EAI는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정치권 · 학계 · 언론계에 적지 않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태도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선거 보도 및 선거연구에 큰 획을 그었다. 이후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비교의 연속성을 위해 2006년도 패널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방선거패널조사는 조사대상과 활용 목적에 따라 ① 5개 지역 패널조사(3회) ② 전국 단위 패널조사 (2회)로 이원화 하여 진행한다.

① 5개 지역패널조사 : 서울/경기/경남/전북/충남 판세변화 및 선거결과 예측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의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각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서울/경기/전북/충남/경남 지역 유권자 대상의 패널조사를 실시한다. 이 중 서울과 충남은 2006년 조사를 진행했던 지역이며 경기, 전북, 경남지역이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조사지역에 포함되었다. 지역패널조사 응답패널은 지역별로 600명을 구성하여 총 3회 반복조사를 실시한다.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조사일시	5월 10일~13일(4일간)	5월 24~26일(3일간)	6월 3일~5일(3일간)																																																
모집단	지역별 19세 이상 성인	지역별 19세 이상 성인	지역별 19세 이상 성인																																																
표본크기	총 3,000명(각 600명)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원패널</th> <th>추가</th> <th>총</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410</td> <td>40</td> <td>450</td> </tr> <tr> <td>경기</td> <td>389</td> <td>63</td> <td>452</td> </tr> <tr> <td>충남</td> <td>397</td> <td>89</td> <td>486</td> </tr> <tr> <td>전북</td> <td>385</td> <td>65</td> <td>450</td> </tr> <tr> <td>경남</td> <td>391</td> <td>59</td> <td>450</td> </tr> </tbody> </table>		원패널	추가	총	서울	410	40	450	경기	389	63	452	충남	397	89	486	전북	385	65	450	경남	391	59	450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원패널</th> <th>추가</th> <th>총</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365</td> <td>0</td> <td>401</td> </tr> <tr> <td>경기</td> <td>342</td> <td>0</td> <td>400</td> </tr> <tr> <td>충남</td> <td>315</td> <td>0</td> <td>373</td> </tr> <tr> <td>전북</td> <td>345</td> <td>0</td> <td>400</td> </tr> <tr> <td>경남</td> <td>347</td> <td>0</td> <td>402</td> </tr> </tbody> </table>		원패널	추가	총	서울	365	0	401	경기	342	0	400	충남	315	0	373	전북	345	0	400	경남	347	0	402
	원패널	추가	총																																																
서울	410	40	450																																																
경기	389	63	452																																																
충남	397	89	486																																																
전북	385	65	450																																																
경남	391	59	450																																																
	원패널	추가	총																																																
서울	365	0	401																																																
경기	342	0	400																																																
충남	315	0	373																																																
전북	345	0	400																																																
경남	347	0	402																																																
표본추출	성/연령/지역 비례 할당	1차 조사 + 누락 분 추가	2차조사자 전수조사																																																
표집오차	95%신뢰수준 ± 4.1%P	95%신뢰수준 ± 4.6%P	95%신뢰수준 ± 4.9~5.1%P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CATI)	전화면접조사(CATI)	전화면접조사(CATI)																																																
유지율	100%	64.2~68.3%	52.5~61.8%																																																

② 전국패널조사 : 중앙정치 및 차기 권력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위주

전국단위 패널조사는 선거 전후 2회를 실시하여 지난 대선 후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변화가 이번 지방선거와 현 정부 후반기 집권전략, 2012년 권력재편에 미칠 파장을 집중 탐색한다. 전국패널조사 응답패널은 2007년 대선패널, 2008년 총선패널에 참여했던 사람들 위주로 1,200명 규모의 패널을 구성하여 이전 선거 이후 2회 유권자 태도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1차 조사	2차 조사
조사일시	5월 4일~6일(3일간)	6월 3일~5일(3일간)
모집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1,200명	904명
표본추출	성/연령/지역 표본할당	성/연령/지역 표본할당
표집오차	95%신뢰수준 ± 2.8%	95%신뢰수준 ± 3.3%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CATI)	전화면접조사(CATI)
유지율	-	75.3%



패널조사 연구팀

팀 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정외과)

연구진

이내영 (연구팀장,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강원택(숭실대 정외과), 권혁용(고려대 정외과), 김성태(고려대 언론학부), 김민전(경희대 교양학부), 서현진(성신여대 사회교육), 유성진(이화여대 BK21), 이우진(고려대 경제학과), 이현우(서강대 정외과), 임성학(시립대 정외과), 지병근(조선대 정외과), 서상민(EAI 중국연구센터), 이곤수(EAI 거버넌스센터),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언론

신창운(중앙일보), 현경보(SBS)

조사연구팀

김춘석(한국리서치 수석연구부장), 임석빈 (한국리서치 과장)

이 보고서는 EAI 여론분석센터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부록

[문3-1] 이번 선거를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야당이나 무소속이 승리한 선거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위 : %)

	사례수 (명)	민주당 등 야당이 잘해서	민주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다른 정당 후보보다 나아서	한나라당이 잘못해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가 못해서	모름/무응 답	계
전체	(904)	2.4	8.8	28.4	50.8	9.5	100.0
성별							
남자	(453)	2.2	5.5	34.0	51.2	7.1	100.0
여자	(451)	2.7	12.2	22.8	50.3	12.0	100.0
연령							
19 - 29 세	(163)	4.3	6.1	23.3	66.3	0.0	100.0
30 대	(199)	2.0	6.5	31.2	54.3	6.0	100.0
40 대	(219)	2.3	11.0	22.8	58.0	5.9	100.0
50 대	(153)	2.6	7.8	28.1	42.5	19.0	100.0
60 대 이상	(170)	1.2	12.4	37.6	30.0	18.8	100.0
학력							
중졸 이하	(61)	3.3	19.7	19.7	32.8	24.6	100.0
고졸	(425)	2.4	10.4	31.5	47.5	8.2	100.0
대재 이상	(415)	2.4	5.8	26.5	57.1	8.2	100.0
모름 / 무응답	(3)	0.0	0.0	33.3	0.0	66.7	100.0
직업							
화이트칼라	(284)	1.4	6.7	25.0	59.2	7.7	100.0
블루칼라	(104)	3.8	7.7	36.5	47.1	4.8	100.0
자영업	(148)	2.7	10.8	33.8	42.6	10.1	100.0
주부	(226)	2.2	11.1	24.3	46.5	15.9	100.0
학생	(71)	4.2	8.5	22.5	64.8	0.0	100.0
무직기타무응답	(71)	2.8	8.5	38.0	39.4	11.3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9)	3.4	15.3	23.7	40.7	16.9	100.0
100 - 199만원	(105)	1.0	8.6	35.2	43.8	11.4	100.0
200 - 299만원	(199)	3.5	8.0	29.1	48.2	11.1	100.0
300 - 399만원	(197)	1.5	3.6	28.9	58.4	7.6	100.0
400만원 이상	(309)	2.3	11.0	25.9	53.7	7.1	100.0
모름 / 무응답	(35)	5.7	14.3	31.4	34.3	14.3	100.0
권역							
서울	(197)	2.0	8.6	25.9	51.8	11.7	100.0
인천 / 경기	(251)	2.0	9.2	28.7	50.6	9.6	100.0
대전 / 충청	(89)	4.5	10.1	28.1	47.2	10.1	100.0
광주 / 전라	(99)	2.0	9.1	22.2	60.6	6.1	100.0
대구 / 경북	(92)	1.1	8.7	29.3	48.9	12.0	100.0
부산/울산/경남	(142)	2.1	7.7	36.6	45.8	7.7	100.0
강원 / 제주	(34)	8.8	8.8	23.5	52.9	5.9	100.0
국정 운영 평가							
긍정 평가	(368)	4.1	15.2	36.7	24.5	19.6	100.0
부정 평가	(526)	1.3	4.0	22.8	69.6	2.3	100.0
모름 / 무응답	(10)	0.0	30.0	20.0	30.0	20.0	100.0
정당 지지도							
한나라당	(321)	4.4	14.0	37.1	27.1	17.4	100.0
민주당	(252)	1.6	5.6	20.2	71.0	1.6	100.0
자유선진당	(26)	0.0	7.7	46.2	42.3	3.8	100.0
민주노동당	(47)	0.0	6.4	21.3	72.3	0.0	100.0
진보신당	(17)	0.0	0.0	41.2	58.8	0.0	100.0
국민참여당	(184)	2.2	7.1	26.6	51.6	12.5	100.0
기타	(57)	0.0	5.3	15.8	75.4	3.5	100.0
이념 성향							
진보	(265)	0.4	7.9	20.4	66.4	4.9	100.0
중도	(310)	2.3	9.4	25.5	53.2	9.7	100.0
보수	(315)	4.4	9.2	38.1	36.2	12.1	100.0
모름 / 무응답	(14)	0.0	7.1	28.6	28.6	35.7	100.0



[문6]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공감하였 다	대체로 공감하였 다	①+②	별로 공감하지 않았다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전체	(904)	30.3	35.3	65.6	24.9	8.6	33.5	0.9	100.0
성별									
남자	(453)	29.8	37.1	66.9	23.8	8.8	32.7	0.4	100.0
여자	(451)	30.8	33.5	64.3	25.9	8.4	34.4	1.3	100.0
연령									
19 - 29 세	(163)	39.9	40.5	80.4	17.2	2.5	19.6	0.0	100.0
30 - 39 세	(199)	32.7	34.7	67.3	26.1	5.5	31.7	1.0	100.0
40 - 49 세	(219)	31.5	39.3	70.8	20.1	7.3	27.4	1.8	100.0
50 - 59 세	(153)	28.1	32.7	60.8	29.4	9.2	38.6	0.7	100.0
60 대 이상	(170)	18.8	28.2	47.1	32.9	19.4	52.4	0.6	100.0
학력									
중졸 이하	(61)	18.0	32.8	50.8	26.2	19.7	45.9	3.3	100.0
고졸	(425)	29.4	35.3	64.7	26.1	7.8	33.9	1.4	100.0
대재 이상	(415)	33.3	35.4	68.7	23.4	8.0	31.3	0.0	100.0
모름 / 무응답	(3)	0.0	66.7	66.7	33.3	0.0	33.3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284)	33.8	37.7	71.5	23.2	5.3	28.5	0.0	100.0
블루칼라	(104)	33.7	40.4	74.0	17.3	7.7	25.0	1.0	100.0
자영업	(148)	29.1	27.7	56.8	28.4	13.5	41.9	1.4	100.0
주부	(226)	27.9	32.3	60.2	28.3	10.2	38.5	1.3	100.0
학생	(71)	36.6	45.1	81.7	14.1	4.2	18.3	0.0	100.0
무직기타무응답	(71)	15.5	33.8	49.3	35.2	12.7	47.9	2.8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9)	22.0	28.8	50.8	28.8	20.3	49.2	0.0	100.0
100 - 199만원	(105)	23.8	37.1	61.0	28.6	8.6	37.1	1.9	100.0
200 - 299만원	(199)	34.2	34.7	68.8	21.1	9.0	30.2	1.0	100.0
300 - 399만원	(197)	27.9	42.6	70.6	21.3	7.1	28.4	1.0	100.0
400만원 이상	(309)	32.7	31.4	64.1	28.2	7.8	35.9	0.0	100.0
모름 / 무응답	(35)	34.3	37.1	71.4	20.0	2.9	22.9	5.7	100.0
권역									
서울	(197)	28.9	35.5	64.5	23.9	10.7	34.5	1.0	100.0
인천 / 경기	(251)	29.1	33.9	62.9	24.7	11.2	35.9	1.2	100.0
대전 / 충청	(89)	38.2	31.5	69.7	21.3	6.7	28.1	2.2	100.0
광주 / 전라	(99)	45.5	39.4	84.8	13.1	1.0	14.1	1.0	100.0
대구 / 경북	(92)	20.7	37.0	57.6	35.9	6.5	42.4	0.0	100.0
부산/울산/경남	(142)	28.9	31.7	60.6	30.3	9.2	39.4	0.0	100.0
강원 / 제주	(34)	14.7	52.9	67.6	23.5	8.8	32.4	0.0	100.0
국정 운영 평가									
긍정 평가	(368)	4.6	28.0	32.6	47.8	18.8	66.6	0.8	100.0
부정 평가	(526)	48.7	40.7	89.4	8.6	1.7	10.3	0.4	100.0
모름 / 무응답	(10)	10.0	20.0	30.0	40.0	0.0	40.0	30.0	100.0
참여정부 국정 운영									
긍정 평가	(537)	43.0	39.3	82.3	15.1	2.2	17.3	0.4	100.0
부정 평가	(354)	11.6	29.7	41.2	39.5	18.6	58.2	0.6	100.0
모름 / 무응답	(13)	15.4	23.1	38.5	30.8	0.0	30.8	30.8	100.0
정당 지지도									
한나라당	(321)	6.5	27.7	34.3	46.1	19.0	65.1	0.6	100.0
민주당	(252)	52.8	36.9	89.7	9.5	0.4	9.9	0.4	100.0
자유선진당	(26)	23.1	30.8	53.8	26.9	19.2	46.2	0.0	100.0
민주노동당	(47)	42.6	44.7	87.2	8.5	0.0	8.5	4.3	100.0
진보신당	(17)	35.3	47.1	82.4	17.6	0.0	17.6	0.0	100.0
국민참여당	(184)	26.6	46.2	72.8	20.7	5.4	26.1	1.1	100.0
기타	(57)	68.4	26.3	94.7	1.8	1.8	3.5	1.8	100.0
이념 성향									
진보	(265)	48.3	34.0	82.3	12.8	4.2	17.0	0.8	100.0
중도	(310)	30.3	38.1	68.4	24.8	6.5	31.3	0.3	100.0
보수	(315)	15.6	34.0	49.5	35.9	14.0	49.8	0.6	100.0
모름 / 무응답	(14)	21.4	28.6	50.0	7.1	21.4	28.6	21.4	100.0



[문6-1] 이명박 정부의 어떤 점을 보고 특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단위 : %)

	사례수 (명)	세종시나 4대강사업 처럼 국민 여론과 달리 독단적으로 밀어붙이	천안함 사건 정부 발표에 신뢰가 안가고,	김제동씨 출연금지 등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이 심하다고	경제살리 기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능력이 부족하다 고 보아서	선거 기간 동안 정부나 한나라당 사람들의 말 실수가 말 실수만 찾고	모름/무 응답	계
전체	(593)	74.5	10.8	5.1	5.9	3.5	0.2	100.0
성별								
남자	(303)	73.9	11.6	5.3	5.0	4.0	0.3	100.0
여자	(290)	75.2	10.0	4.8	6.9	3.1	0.0	100.0
연령								
19 - 29 세	(131)	75.6	13.0	7.6	0.8	3.1	0.0	100.0
30 대	(134)	74.6	10.4	4.5	7.5	3.0	0.0	100.0
40 대	(155)	78.1	8.4	4.5	6.5	2.6	0.0	100.0
50 대	(93)	71.0	12.9	3.2	9.7	3.2	0.0	100.0
60 대 이상	(80)	70.0	10.0	5.0	6.3	7.5	1.3	100.0
학력								
중졸 이하	(31)	67.7	9.7	6.5	12.9	3.2	0.0	100.0
고졸	(275)	71.6	12.0	5.1	7.3	4.0	0.0	100.0
대재 이상	(285)	77.9	9.8	4.9	3.9	3.2	0.4	100.0
모름 / 무응답	(2)	100.0	0.0	0.0	0.0	0.0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203)	78.3	10.3	4.9	2.5	3.9	0.0	100.0
블루칼라	(77)	68.8	11.7	7.8	11.7	0.0	0.0	100.0
자영업	(84)	71.4	13.1	2.4	8.3	3.6	1.2	100.0
주부	(136)	73.5	10.3	4.4	8.8	2.9	0.0	100.0
학생	(58)	75.9	12.1	6.9	1.7	3.4	0.0	100.0
무직기타무응답	(35)	74.3	5.7	5.7	2.9	11.4	0.0	100.0
가구소득								
100 만원 미만	(30)	56.7	13.3	10.0	13.3	6.7	0.0	100.0
100 - 199 만원	(64)	75.0	7.8	4.7	9.4	1.6	1.6	100.0
200 - 299 만원	(137)	77.4	12.4	5.1	2.9	2.2	0.0	100.0
300 - 399 만원	(139)	79.1	9.4	3.6	4.3	3.6	0.0	100.0
400 만원 이상	(198)	72.7	11.1	5.6	6.1	4.5	0.0	100.0
모름 / 무응답	(25)	68.0	12.0	4.0	12.0	4.0	0.0	100.0
지역								
서울	(127)	74.8	10.2	6.3	4.7	3.9	0.0	100.0
인천 / 경기	(158)	73.4	10.1	6.3	6.3	3.8	0.0	100.0
대전 / 충청	(62)	85.5	3.2	3.2	4.8	3.2	0.0	100.0
광주 / 전라	(84)	67.9	20.2	4.8	3.6	3.6	0.0	100.0
대구 / 경북	(53)	58.5	18.9	1.9	15.1	5.7	0.0	100.0
부산/울산/경남	(86)	82.6	4.7	5.8	3.5	2.3	1.2	100.0
강원 / 제주	(23)	82.6	8.7	0.0	8.7	0.0	0.0	100.0
국정 운영 평가								
긍정 평가	(120)	62.5	8.3	5.0	15.8	7.5	0.8	100.0
부정 평가	(470)	77.4	11.5	5.1	3.4	2.6	0.0	100.0
모름 / 무응답	(3)	100.0	0.0	0.0	0.0	0.0	0.0	100.0
정당 지지도								
한나라당	(110)	60.0	11.8	4.5	14.5	9.1	0.0	100.0
민주당	(226)	78.8	12.4	3.5	4.0	1.3	0.0	100.0
자유선진당	(14)	78.6	7.1	0.0	7.1	0.0	7.1	100.0
민주노동당	(41)	80.5	9.8	7.3	0.0	2.4	0.0	100.0
진보신당	(14)	85.7	0.0	0.0	14.3	0.0	0.0	100.0
국민참여당	(134)	73.9	10.4	6.0	5.2	4.5	0.0	100.0
기타	(54)	79.6	7.4	11.1	0.0	1.9	0.0	100.0
이념 성향								
진보	(218)	76.1	11.5	6.9	3.7	1.8	0.0	100.0
중도	(212)	75.0	12.3	5.2	6.1	1.4	0.0	100.0
보수	(156)	71.8	8.3	2.6	7.7	9.0	0.6	100.0
모름 / 무응답	(7)	71.4	0.0	0.0	28.6	0.0	0.0	100.0



[문15]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①+②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전체	(904)	6.6	34.1	40.7	32.2	26.0	58.2	1.1	100.0
성별									
남자	(453)	6.4	33.6	40.0	30.9	28.5	59.4	0.7	100.0
여자	(451)	6.9	34.6	41.5	33.5	23.5	57.0	1.6	100.0
연령									
19 - 29 세	(163)	0.6	13.5	14.1	42.3	43.6	85.9	0.0	100.0
30 - 39 세	(199)	3.5	27.6	31.2	35.7	31.7	67.3	1.5	100.0
40 - 49 세	(219)	2.7	35.2	37.9	33.8	26.5	60.3	1.8	100.0
50 - 59 세	(153)	10.5	41.2	51.6	25.5	22.2	47.7	0.7	100.0
60 대 이상	(170)	17.6	53.5	71.2	22.4	5.3	27.6	1.2	100.0
학력									
중졸 이하	(61)	11.5	57.4	68.9	19.7	9.8	29.5	1.6	100.0
고졸	(425)	7.8	33.6	41.4	32.0	24.9	56.9	1.6	100.0
대재이상	(415)	4.6	31.3	35.9	34.0	29.6	63.6	0.5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0.0	33.3	66.7	0.0	66.7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284)	3.9	26.1	29.9	36.6	32.7	69.4	0.7	100.0
블루칼라	(104)	5.8	35.6	41.3	28.8	29.8	58.7	0.0	100.0
자영업	(148)	12.2	39.9	52.0	23.6	23.0	46.6	1.4	100.0
주부	(226)	8.4	39.8	48.2	32.3	17.3	49.6	2.2	100.0
학생	(71)	1.4	19.7	21.1	38.0	40.8	78.9	0.0	100.0
무직기타무응답	(71)	7.0	47.9	54.9	31.0	12.7	43.7	1.4	100.0
가구소득									
100 만원 미만	(59)	16.9	47.5	64.4	16.9	15.3	32.2	3.4	100.0
100 - 199 만원	(105)	4.8	39.0	43.8	35.2	19.0	54.3	1.9	100.0
200 - 299 만원	(199)	5.5	31.2	36.7	31.2	30.2	61.3	2.0	100.0
300 - 399 만원	(197)	6.1	30.5	36.5	37.1	25.9	62.9	0.5	100.0
400 만원 이상	(309)	5.8	34.6	40.5	31.7	27.5	59.2	0.3	100.0
모름 / 무응답	(35)	11.4	28.6	40.0	31.4	28.6	60.0	0.0	100.0
지역									
서울	(197)	6.6	36.0	42.6	36.0	20.8	56.9	0.5	100.0
인천 / 경기	(251)	6.4	34.3	40.6	35.1	23.1	58.2	1.2	100.0
대전 / 충청	(89)	4.5	34.8	39.3	27.0	30.3	57.3	3.4	100.0
광주 / 전라	(99)	2.0	15.2	17.2	36.4	44.4	80.8	2.0	100.0
대구 / 경북	(92)	9.8	40.2	50.0	30.4	19.6	50.0	0.0	100.0
부산/울산/경남	(142)	10.6	38.0	48.6	22.5	28.2	50.7	0.7	100.0
강원 / 제주	(34)	2.9	41.2	44.1	35.3	20.6	55.9	0.0	100.0
국정 운영 평가									
긍정 평가	(368)	16.3	83.7	100.0	0.0	0.0	0.0	0.0	100.0
부정 평가	(526)	0.0	0.0	0.0	55.3	44.7	100.0	0.0	100.0
모름 / 무응답	(1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정당 지지도									
한나라당	(321)	16.5	63.6	80.1	15.6	3.7	19.3	0.6	100.0
민주당	(252)	0.4	11.1	11.5	47.2	40.5	87.7	0.8	100.0
자유선진당	(26)	7.7	42.3	50.0	34.6	15.4	50.0	0.0	100.0
민주노동당	(47)	0.0	8.5	8.5	31.9	55.3	87.2	4.3	100.0
진보신당	(17)	0.0	29.4	29.4	41.2	29.4	70.6	0.0	100.0
국민참여당	(184)	2.2	29.3	31.5	39.7	27.2	66.8	1.6	100.0
기타	(57)	0.0	3.5	3.5	31.6	63.2	94.7	1.8	100.0
이념 성향									
보수	(265)	4.2	14.7	18.9	35.5	44.2	79.6	1.5	100.0
중도	(310)	5.2	32.6	37.7	38.1	23.5	61.6	0.6	100.0
보수	(315)	9.2	52.4	61.6	24.1	13.7	37.8	0.6	100.0
모름 / 무응답	(14)	28.6	21.4	50.0	21.4	14.3	35.7	14.3	100.0



[문15-1]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 중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단위 : %)

	사례수 (명)	정책의 내용과 방향	일하는 능력	일을 추진하는 방식	잘 모르겠다	계
전체	(526)	23.8	3.4	67.9	4.9	100.0
성별						
남자	(269)	21.9	4.8	69.1	4.1	100.0
여자	(257)	25.7	1.9	66.5	5.8	100.0
연령						
19 - 29 세	(140)	25.7	4.3	67.1	2.9	100.0
30 대	(134)	20.1	2.2	71.6	6.0	100.0
40 대	(132)	26.5	3.8	63.6	6.1	100.0
50 대	(73)	30.1	2.7	61.6	5.5	100.0
60 대 이상	(47)	10.6	4.3	80.9	4.3	100.0
학력						
중졸 이하	(18)	16.7	5.6	66.7	11.1	100.0
고졸	(242)	21.1	4.5	69.0	5.4	100.0
대재 이상	(264)	26.9	2.3	67.4	3.4	100.0
모름 / 무응답	(2)	0.0	0.0	0.0	10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197)	22.3	2.5	73.6	1.5	100.0
블루칼라	(61)	29.5	6.6	57.4	6.6	100.0
자영업	(69)	24.6	4.3	62.3	8.7	100.0
주부	(112)	24.1	3.6	65.2	7.1	100.0
학생	(56)	21.4	3.6	69.6	5.4	100.0
무직기타무응답	(31)	22.6	0.0	71.0	6.5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9)	26.3	15.8	47.4	10.5	100.0
100 - 199만원	(57)	28.1	1.8	59.6	10.5	100.0
200 - 299만원	(122)	22.1	2.5	69.7	5.7	100.0
300 - 399만원	(124)	19.4	4.0	72.6	4.0	100.0
400만원 이상	(183)	26.2	2.7	69.9	1.1	100.0
모름 / 무응답	(21)	23.8	4.8	52.4	19.0	100.0
권역						
서울	(112)	27.7	0.9	64.3	7.1	100.0
인천 / 경기	(146)	26.7	4.8	66.4	2.1	100.0
대전 / 충청	(51)	15.7	2.0	78.4	3.9	100.0
광주 / 전라	(80)	20.0	6.3	70.0	3.8	100.0
대구 / 경북	(46)	23.9	4.3	65.2	6.5	100.0
부산/울산/경남	(72)	23.6	1.4	68.1	6.9	100.0
강원 / 제주	(19)	15.8	5.3	68.4	10.5	100.0
국정 운영 평가						
부정 평가	(526)	23.8	3.4	67.9	4.9	100.0
정당 지지도						
한나라당	(62)	8.1	3.2	83.9	4.8	100.0
민주당	(221)	25.3	4.5	65.2	5.0	100.0
자유선진당	(13)	23.1	0.0	69.2	7.7	100.0
민주노동당	(41)	29.3	0.0	70.7	0.0	100.0
진보신당	(12)	25.0	0.0	75.0	0.0	100.0
국민참여당	(123)	24.4	1.6	67.5	6.5	100.0
기타	(54)	29.6	7.4	57.4	5.6	100.0
이념 성향						
진보	(211)	25.6	2.4	69.7	2.4	100.0
중도	(191)	24.1	4.7	64.4	6.8	100.0
보수	(119)	21.0	3.4	69.7	5.9	100.0
모름 / 무응답	(5)	0.0	0.0	80.0	20.0	100.0



[문16] ___님께서서는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떠한 형태의 리더십(지도력)을 원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강력하게 국정을 추진해가는 대통령	안정감 있는 화합형의 대통령	꼼꼼하고 실무적인 CEO형 대통령	기타	모름/무 응답	계
전체	(904)	14.2	67.9	11.7	5.9	0.3	100.0
성별							
남자	(453)	17.0	65.1	12.8	4.9	0.2	100.0
여자	(451)	11.3	70.7	10.6	6.9	0.4	100.0
연령							
19 - 29 세	(163)	7.4	75.5	5.5	11.7	0.0	100.0
30 대	(199)	6.5	70.4	15.6	7.0	0.5	100.0
40 대	(219)	14.6	64.4	15.5	4.6	0.9	100.0
50 대	(153)	17.6	69.3	7.8	5.2	0.0	100.0
60 대 이상	(170)	25.9	61.2	11.8	1.2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61)	18.0	62.3	18.0	1.6	0.0	100.0
고졸	(425)	12.9	69.6	12.5	4.5	0.5	100.0
대재 이상	(415)	14.7	67.2	10.1	7.7	0.2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33.3	0.0	33.3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284)	10.2	69.0	12.0	8.1	0.7	100.0
블루칼라	(104)	19.2	63.5	14.4	2.9	0.0	100.0
자영업	(148)	27.0	60.1	9.5	3.4	0.0	100.0
주부	(226)	10.2	71.7	12.4	5.3	0.4	100.0
학생	(71)	8.5	76.1	7.0	8.5	0.0	100.0
무직기타무응답	(71)	14.1	66.2	14.1	5.6	0.0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9)	16.9	61.0	13.6	8.5	0.0	100.0
100 - 199만원	(105)	12.4	65.7	20.0	1.9	0.0	100.0
200 - 299만원	(199)	14.6	64.8	11.6	9.0	0.0	100.0
300 - 399만원	(197)	12.7	70.6	10.2	5.1	1.5	100.0
400만원 이상	(309)	14.9	71.2	10.0	3.9	0.0	100.0
모름 / 무응답	(35)	14.3	60.0	8.6	17.1	0.0	100.0
권역							
서울	(197)	14.7	68.0	13.7	3.0	0.5	100.0
인천 / 경기	(251)	14.7	68.5	9.6	6.8	0.4	100.0
대전 / 충청	(89)	14.6	68.5	7.9	7.9	1.1	100.0
광주 / 전라	(99)	5.1	72.7	17.2	5.1	0.0	100.0
대구 / 경북	(92)	19.6	64.1	12.0	4.3	0.0	100.0
부산/울산/경남	(142)	16.2	64.8	10.6	8.5	0.0	100.0
강원 / 제주	(34)	8.8	70.6	14.7	5.9	0.0	100.0
국정 운영 평가							
긍정 평가	(368)	29.6	55.7	12.5	1.9	0.3	100.0
부정 평가	(526)	3.4	76.6	11.0	8.7	0.2	100.0
모름 / 무응답	(10)	10.0	60.0	20.0	0.0	10.0	100.0
정당 지지도							
한나라당	(321)	29.9	57.3	10.9	1.6	0.3	100.0
민주당	(252)	4.4	72.2	15.5	7.5	0.4	100.0
자유선진당	(26)	15.4	61.5	11.5	11.5	0.0	100.0
민주노동당	(47)	0.0	85.1	10.6	4.3	0.0	100.0
진보신당	(17)	0.0	82.4	5.9	11.8	0.0	100.0
국민참여당	(184)	9.2	72.3	10.3	7.6	0.5	100.0
기타	(57)	0.0	78.9	7.0	14.0	0.0	100.0
이념 성향							
진보	(265)	7.2	74.7	9.4	8.3	0.4	100.0
중도	(310)	13.5	67.1	12.6	6.5	0.3	100.0
보수	(315)	20.6	62.9	13.0	3.5	0.0	100.0
모름 / 무응답	(14)	14.3	71.4	7.1	0.0	7.1	100.0



[문19]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습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한미동맹 중심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모름/무응답	계
전체	(904)	59.8	37.1	3.1	100.0
성별					
남자	(453)	63.8	33.8	2.4	100.0
여자	(451)	55.9	40.4	3.8	100.0
연령					
19 - 29 세	(163)	50.3	47.2	2.5	100.0
30 - 39 세	(199)	49.7	48.2	2.0	100.0
40 - 49 세	(219)	52.5	44.3	3.2	100.0
50 - 59 세	(153)	69.9	26.8	3.3	100.0
60 대 이상	(170)	81.2	14.1	4.7	100.0
학력					
중졸 이하	(61)	72.1	19.7	8.2	100.0
고졸	(425)	60.7	35.8	3.5	100.0
대재 이상	(415)	57.1	41.0	1.9	100.0
모름 / 무응답	(3)	66.7	33.3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284)	51.8	45.8	2.5	100.0
블루칼라	(104)	67.3	30.8	1.9	100.0
자영업	(148)	71.6	25.7	2.7	100.0
주부	(226)	56.2	38.5	5.3	100.0
학생	(71)	57.7	39.4	2.8	100.0
무직기타무응답	(71)	70.4	28.2	1.4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9)	71.2	27.1	1.7	100.0
100 - 199만원	(105)	61.0	33.3	5.7	100.0
200 - 299만원	(199)	58.3	36.7	5.0	100.0
300 - 399만원	(197)	56.9	41.1	2.0	100.0
400만원 이상	(309)	61.5	36.6	1.9	100.0
모름 / 무응답	(35)	48.6	48.6	2.9	100.0
지역					
서울	(197)	60.4	35.0	4.6	100.0
인천 / 경기	(251)	59.8	38.2	2.0	100.0
대전 / 충청	(89)	62.9	34.8	2.2	100.0
광주 / 전라	(99)	46.5	48.5	5.1	100.0
대구 / 경북	(92)	65.2	32.6	2.2	100.0
부산/울산/경남	(142)	64.1	33.8	2.1	100.0
강원 / 제주	(34)	55.9	38.2	5.9	100.0
국정 운영 평가					
긍정 평가	(368)	84.0	14.9	1.1	100.0
부정 평가	(526)	43.5	52.7	3.8	100.0
모름 / 무응답	(10)	30.0	30.0	40.0	100.0
정당 지지도					
한나라당	(321)	82.2	16.5	1.2	100.0
민주노동당	(252)	45.6	50.4	4.0	100.0
자유선진당	(26)	84.6	15.4	0.0	100.0
민주노동당	(47)	36.2	57.4	6.4	100.0
진보신당	(17)	58.8	35.3	5.9	100.0
국민참여당	(184)	52.2	44.0	3.8	100.0
기타	(57)	29.8	64.9	5.3	100.0
이념 성향					
진보	(265)	41.1	54.7	4.2	100.0
중도	(310)	58.7	37.7	3.5	100.0
보수	(315)	76.8	21.9	1.3	100.0
모름 / 무응답	(14)	57.1	28.6	14.3	100.0



[문20] 앞으로 남북관계를 길게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나요?

(단위 : %)

	사례수 (명)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모름/무응답	계
전체	(904)	35.4	62.9	1.7	100.0
성별					
남자	(453)	38.2	60.0	1.8	100.0
여자	(451)	32.6	65.9	1.6	100.0
연령					
19 - 29 세	(163)	27.0	71.8	1.2	100.0
30 대	(199)	35.7	61.3	3.0	100.0
40 대	(219)	36.5	62.1	1.4	100.0
50 대	(153)	32.0	67.3	0.7	100.0
60 대 이상	(170)	44.7	53.5	1.8	100.0
학력					
중졸 이하	(61)	39.3	60.7	0.0	100.0
고졸	(425)	36.2	62.4	1.4	100.0
대재 이상	(415)	33.7	64.1	2.2	100.0
모름 / 무응답	(3)	66.7	33.3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284)	27.1	71.1	1.8	100.0
블루칼라	(104)	42.3	57.7	0.0	100.0
자영업	(148)	45.9	52.0	2.0	100.0
주부	(226)	37.2	60.2	2.7	100.0
학생	(71)	26.8	71.8	1.4	100.0
무직기타무응답	(71)	39.4	60.6	0.0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9)	39.0	61.0	0.0	100.0
100 - 199만원	(105)	41.9	55.2	2.9	100.0
200 - 299만원	(199)	31.2	66.8	2.0	100.0
300 - 399만원	(197)	32.0	66.5	1.5	100.0
400만원 이상	(309)	38.5	60.2	1.3	100.0
모름 / 무응답	(35)	25.7	71.4	2.9	100.0
권역					
서울	(197)	38.1	59.9	2.0	100.0
인천 / 경기	(251)	34.3	64.1	1.6	100.0
대전 / 충청	(89)	29.2	69.7	1.1	100.0
광주 / 전라	(99)	18.2	79.8	2.0	100.0
대구 / 경북	(92)	41.3	56.5	2.2	100.0
부산/울산/경남	(142)	43.7	55.6	0.7	100.0
강원 / 제주	(34)	44.1	52.9	2.9	100.0
국정운영평가					
긍정평가	(368)	57.6	40.8	1.6	100.0
부정평가	(526)	20.0	78.7	1.3	100.0
모름 / 무응답	(10)	30.0	50.0	20.0	100.0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321)	57.3	41.4	1.2	100.0
민주당	(252)	19.8	79.0	1.2	100.0
자유선진당	(26)	42.3	57.7	0.0	100.0
민주노동당	(47)	14.9	85.1	0.0	100.0
진보신당	(17)	35.3	64.7	0.0	100.0
국민참여당	(184)	30.4	66.3	3.3	100.0
기타	(57)	10.5	86.0	3.5	100.0
이념성향					
진보	(265)	21.1	77.7	1.1	100.0
중도	(310)	33.2	65.2	1.6	100.0
보수	(315)	49.8	48.3	1.9	100.0
모름 / 무응답	(14)	28.6	64.3	7.1	100.0



[문2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경제성장이 소득분배보다 중요한 편이다	소득분배가 경제성장보다 중요한 편이다	모름/무응답	계
전체	(904)	45.0	51.9	3.1	100.0
성별					
남자	(453)	43.3	54.3	2.4	100.0
여자	(451)	46.8	49.4	3.8	100.0
연령					
19 - 29 세	(163)	33.7	64.4	1.8	100.0
30 - 39 세	(199)	38.2	57.8	4.0	100.0
40 - 49 세	(219)	42.5	54.3	3.2	100.0
50 - 59 세	(153)	54.2	43.8	2.0	100.0
60 대 이상	(170)	58.8	37.1	4.1	100.0
학력					
중졸 이하	(61)	55.7	34.4	9.8	100.0
고졸	(425)	48.0	49.6	2.4	100.0
대재 이상	(415)	40.2	57.1	2.7	100.0
모름 / 무응답	(3)	66.7	0.0	33.3	100.0
직업					
화이트칼라	(284)	38.7	57.7	3.5	100.0
블루칼라	(104)	49.0	49.0	1.9	100.0
자영업	(148)	48.6	49.3	2.0	100.0
주부	(226)	48.7	46.5	4.9	100.0
학생	(71)	36.6	62.0	1.4	100.0
무직기타무응답	(71)	53.5	45.1	1.4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9)	40.7	52.5	6.8	100.0
100 - 199만원	(105)	43.8	51.4	4.8	100.0
200 - 299만원	(199)	49.7	47.7	2.5	100.0
300 - 399만원	(197)	39.6	57.4	3.0	100.0
400만원 이상	(309)	48.2	50.5	1.3	100.0
모름 / 무응답	(35)	31.4	57.1	11.4	100.0
지역					
서울	(197)	43.1	52.8	4.1	100.0
인천 / 경기	(251)	48.6	49.4	2.0	100.0
대전 / 충청	(89)	38.2	59.6	2.2	100.0
광주 / 전라	(99)	36.4	59.6	4.0	100.0
대구 / 경북	(92)	53.3	43.5	3.3	100.0
부산/울산/경남	(142)	48.6	48.6	2.8	100.0
강원 / 제주	(34)	35.3	58.8	5.9	100.0
국정 운영 평가					
긍정 평가	(368)	63.3	33.7	3.0	100.0
부정 평가	(526)	32.1	65.0	2.9	100.0
모름 / 무응답	(10)	50.0	30.0	20.0	100.0
참여정부 국정 운영					
긍정 평가	(537)	34.8	62.8	2.4	100.0
부정 평가	(354)	60.5	35.9	3.7	100.0
모름 / 무응답	(13)	46.2	38.5	15.4	100.0
정당 지지도					
한나라당	(321)	64.8	31.8	3.4	100.0
민주노동당	(252)	36.9	61.9	1.2	100.0
자유선진당	(26)	50.0	46.2	3.8	100.0
민주노동당	(47)	23.4	72.3	4.3	100.0
진보신당	(17)	52.9	47.1	0.0	100.0
국민참여당	(184)	35.3	59.2	5.4	100.0
기타	(57)	14.0	84.2	1.8	100.0
이념 성향					
진보	(265)	27.5	67.9	4.5	100.0
중도	(310)	45.5	51.9	2.6	100.0
보수	(315)	59.7	38.7	1.6	100.0
모름 / 무응답	(14)	35.7	42.9	21.4	100.0



[문22] 정치적 질서와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정부는 정치적 자유보다는 질서 유지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정치적 질서보다는 국민의 자유를 위해 힘써야 한다	모름/무응답	계
전체	(904)	34.6	62.5	2.9	100.0
성별					
남자	(453)	34.4	62.9	2.6	100.0
여자	(451)	34.8	62.1	3.1	100.0
연령					
19 - 29 세	(163)	12.9	86.5	0.6	100.0
30 대	(199)	25.6	71.4	3.0	100.0
40 대	(219)	37.0	60.3	2.7	100.0
50 대	(153)	42.5	53.6	3.9	100.0
60 대 이상	(170)	55.9	40.0	4.1	100.0
학력					
중졸 이하	(61)	39.3	54.1	6.6	100.0
고졸	(425)	35.8	62.1	2.1	100.0
대재 이상	(415)	32.5	64.3	3.1	100.0
모름 / 무응답	(3)	66.7	33.3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284)	24.6	72.9	2.5	100.0
블루칼라	(104)	34.6	65.4	0.0	100.0
자영업	(148)	45.3	50.7	4.1	100.0
주부	(226)	42.9	52.7	4.4	100.0
학생	(71)	16.9	81.7	1.4	100.0
무직기타무응답	(71)	43.7	53.5	2.8	100.0
가구소득					
100 만원 미만	(59)	35.6	57.6	6.8	100.0
100 - 199 만원	(105)	44.8	52.4	2.9	100.0
200 - 299 만원	(199)	32.2	66.3	1.5	100.0
300 - 399 만원	(197)	35.0	61.9	3.0	100.0
400 만원 이상	(309)	34.3	63.1	2.6	100.0
모름 / 무응답	(35)	17.1	77.1	5.7	100.0
권역					
서울	(197)	36.5	58.9	4.6	100.0
인천 / 경기	(251)	37.5	60.2	2.4	100.0
대전 / 충청	(89)	34.8	65.2	0.0	100.0
광주 / 전라	(99)	22.2	75.8	2.0	100.0
대구 / 경북	(92)	35.9	62.0	2.2	100.0
부산/울산/경남	(142)	34.5	61.3	4.2	100.0
강원 / 제주	(34)	35.3	61.8	2.9	100.0
국정 운영 평가					
긍정 평가	(368)	59.0	38.6	2.4	100.0
부정 평가	(526)	17.7	79.7	2.7	100.0
모름 / 무응답	(10)	30.0	40.0	30.0	100.0
정당 지지도					
한나라당	(321)	57.0	40.2	2.8	100.0
민주당	(252)	18.3	79.0	2.8	100.0
자유선진당	(26)	50.0	50.0	0.0	100.0
민주노동당	(47)	8.5	89.4	2.1	100.0
진보신당	(17)	29.4	70.6	0.0	100.0
국민참여당	(184)	31.5	64.1	4.3	100.0
기타	(57)	7.0	91.2	1.8	100.0
이념 성향					
진보	(265)	17.0	80.4	2.6	100.0
중도	(310)	31.3	66.1	2.6	100.0
보수	(315)	53.3	43.8	2.9	100.0
모름 / 무응답	(14)	21.4	64.3	14.3	100.0



[문25] 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인 교육과학중심경제 도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904)	37.7	36.5	25.8	100.0
성별					
남자	(453)	47.9	34.2	17.9	100.0
여자	(451)	27.5	38.8	33.7	100.0
연령					
19 - 29 세	(163)	42.3	27.0	30.7	100.0
30 - 39 세	(199)	38.2	30.7	31.2	100.0
40 - 49 세	(219)	42.9	33.8	23.3	100.0
50 - 59 세	(153)	41.2	40.5	18.3	100.0
60 대 이상	(170)	22.9	52.4	24.7	100.0
학력					
중졸 이하	(61)	23.0	34.4	42.6	100.0
고졸	(425)	35.3	36.9	27.8	100.0
대재 이상	(415)	42.7	36.4	21.0	100.0
모름 / 무응답	(3)	0.0	33.3	66.7	100.0
직업					
화이트칼라	(284)	47.5	30.6	21.8	100.0
블루칼라	(104)	43.3	26.9	29.8	100.0
자영업	(148)	41.2	37.8	20.9	100.0
주부	(226)	21.7	45.1	33.2	100.0
학생	(71)	42.3	32.4	25.4	100.0
무직기타무응답	(71)	29.6	47.9	22.5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9)	27.1	42.4	30.5	100.0
100 - 199만원	(105)	31.4	35.2	33.3	100.0
200 - 299만원	(199)	36.7	34.2	29.1	100.0
300 - 399만원	(197)	40.1	32.5	27.4	100.0
400만원 이상	(309)	41.7	39.8	18.4	100.0
모름 / 무응답	(35)	31.4	37.1	31.4	100.0
권역					
서울	(197)	33.5	40.1	26.4	100.0
인천 / 경기	(251)	34.3	42.2	23.5	100.0
대전 / 충청	(89)	55.1	28.1	16.9	100.0
광주 / 전라	(99)	48.5	24.2	27.3	100.0
대구 / 경북	(92)	38.0	34.8	27.2	100.0
부산/울산/경남	(142)	33.1	37.3	29.6	100.0
강원 / 제주	(34)	29.4	32.4	38.2	100.0
국정 운영 평가					
긍정 평가	(368)	19.3	55.7	25.0	100.0
부정 평가	(526)	51.0	22.8	26.2	100.0
모름 / 무응답	(10)	20.0	50.0	30.0	100.0
정당 지지도					
한나라당	(321)	17.1	58.6	24.3	100.0
민주노동당	(252)	49.2	23.8	27.0	100.0
자유선진당	(26)	53.8	30.8	15.4	100.0
민주노동당	(47)	57.4	21.3	21.3	100.0
진보신당	(17)	58.8	11.8	29.4	100.0
국민참여당	(184)	40.2	27.7	32.1	100.0
기타	(57)	64.9	19.3	15.8	100.0
이념 성향					
진보	(265)	55.1	21.9	23.0	100.0
중도	(310)	37.7	31.6	30.6	100.0
보수	(315)	24.1	53.3	22.5	100.0
모름 / 무응답	(14)	14.3	42.9	42.9	100.0



[문26]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춰야 한다	4대강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904)	18.4	35.2	38.4	8.1	100.0
성별						
남자	(453)	21.6	34.4	38.4	5.5	100.0
여자	(451)	15.1	35.9	38.4	10.6	100.0
연령						
19 - 29 세	(163)	5.5	26.4	60.1	8.0	100.0
30 대	(199)	12.6	34.7	43.7	9.0	100.0
40 대	(219)	13.7	39.3	39.3	7.8	100.0
50 대	(153)	27.5	33.3	31.4	7.8	100.0
60 대 이상	(170)	35.3	40.6	16.5	7.6	100.0
학력						
중졸 이하	(61)	29.5	29.5	23.0	18.0	100.0
고졸	(425)	17.9	35.5	36.5	10.1	100.0
대재 이상	(415)	17.3	35.4	42.9	4.3	100.0
모름 / 무응답	(3)	0.0	66.7	0.0	33.3	100.0
직업						
화이트칼라	(284)	15.8	35.2	42.3	6.7	100.0
블루칼라	(104)	19.2	33.7	40.4	6.7	100.0
자영업	(148)	31.1	38.5	24.3	6.1	100.0
주부	(226)	15.9	36.3	37.2	10.6	100.0
학생	(71)	4.2	21.1	67.6	7.0	100.0
무직기타무응답	(71)	22.5	40.8	23.9	12.7	100.0
가구소득						
100 만원 미만	(59)	30.5	28.8	20.3	20.3	100.0
100 - 199 만원	(105)	15.2	41.0	36.2	7.6	100.0
200 - 299 만원	(199)	18.6	30.7	39.2	11.6	100.0
300 - 399 만원	(197)	16.2	36.5	42.1	5.1	100.0
400 만원 이상	(309)	19.1	36.6	38.8	5.5	100.0
모름 / 무응답	(35)	11.4	34.3	45.7	8.6	100.0
권역						
서울	(197)	16.8	40.6	36.0	6.6	100.0
인천 / 경기	(251)	18.3	37.5	37.1	7.2	100.0
대전 / 충청	(89)	11.2	41.6	38.2	9.0	100.0
광주 / 전라	(99)	8.1	28.3	53.5	10.1	100.0
대구 / 경북	(92)	35.9	28.3	27.2	8.7	100.0
부산/울산/경남	(142)	23.2	27.5	41.5	7.7	100.0
강원 / 제주	(34)	8.8	41.2	35.3	14.7	100.0
국정 운영 평가						
긍정 평가	(368)	40.2	39.7	9.2	10.9	100.0
부정 평가	(526)	3.4	32.1	58.4	6.1	100.0
모름 / 무응답	(10)	0.0	30.0	60.0	10.0	100.0
정당 지지도						
한나라당	(321)	41.1	41.1	9.3	8.4	100.0
민주당	(252)	2.8	31.7	58.3	7.1	100.0
자유선진당	(26)	3.8	57.7	34.6	3.8	100.0
민주노동당	(47)	2.1	17.0	74.5	6.4	100.0
진보신당	(17)	5.9	17.6	58.8	17.6	100.0
국민참여당	(184)	13.0	38.6	38.0	10.3	100.0
기타	(57)	0.0	15.8	80.7	3.5	100.0
이념 성향						
진보	(265)	8.3	28.7	57.0	6.0	100.0
중도	(310)	15.2	34.8	38.7	11.3	100.0
보수	(315)	28.9	42.2	21.9	7.0	100.0
모름 / 무응답	(14)	42.9	7.1	50.0	0.0	100.0

